

갈보리 소식

※ 처음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새 가족실에서 담임 목사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 2011 교회표어: 기도로 세워지고, 말씀으로 성숙하는 교회 (행6:4)

- ① **성찬주일:** 성찬에 참여한 감동이 삶 속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 ② **당회:** 1부 예배 후 6월 정기 당회로 모입니다.
- ③ **창립주일:** 다음달 7월10일은 교회 창립12주년 주일입니다. 그리고, 20일(수)은 창립 감사 갈보리 음악축제를 갖습니다.
- ④ **바자회:** 단기 선교 후원을 위한 바자회가 2 여선교회 주관으로 1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품목: 의류, 신발류, 김밥)
- ⑤ **갈보리 장터:** 성전 건축헌금을 위한 갈보리 장터 코너를 마련합니다. 이번 주는 골프 가방입니다. 보시고 필요하신 분 구입 바랍니다. (주관: 3 남 선교회)
- ⑥ **모임:** 4 남선교회, 1 여선교회 월례회가 있습니다.
- ⑦ **공동체 예배:** 이번 주 수요일예배는 통가 공동체 주관입니다.
- ⑧ **새벽기도회:** 매주 금요일 새벽 5시 50분에 교회 1층 Chapel실에서 있습니다.
- ⑨ **연합집회:** 뉴질랜드 전교회연합 불신자 초청집회가 있습니다. 일시: 6.25 (토 오후7시), 6.26 (주일 오후6시)

갈보리교회 선교지

해외 선교지

- ▷ 루마니아: 김유정선교사 (집사지역)
- ▷ 중국: 김강한목사 (탈북자지역)

국내 선교지

- ▷ City Mission 섬김
- ▷ 밀알장애우 봉사

7월 교회일지

창립기념 감사주일 :

7월 10일 (주일)

성경캠프 (아동부):

7월 15일-16일 (금 토)

창립감사 음악축제:

7월 20일(수요일)

새로 등록하신 분

전화번호

주소

공동체 인도자

전인우, 양윤주 집사 (은지,지훈) 638-3533 74C St Vincent Ave Remuera 4 베트남 스스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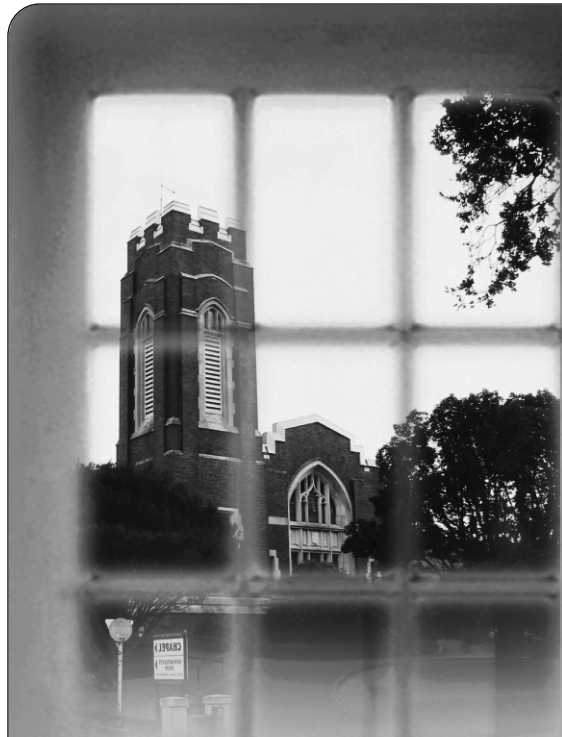
7월 기도자 및 안내담당

	1부기도	2부기도	수요기도	예배 안내	새신자 안내	주차안내	주방봉사
4일	박덕철	진혜령	정진택	고성일/김봉희	노은숙/심경순/김광자	양봉욱	정희자/한상순/김제연
11일	박병민	방명아	김휘영	고성일/김봉희	노은숙/심경순/김광자	양봉욱	정희자/한상순/김제연
18일	이동술	원미경	남영수	고성일/김봉희	노은숙/심경순/김광자	양봉욱	정희자/한상순/김제연
25일	최득수	최장한	민광호	고성일/김봉희	노은숙/심경순/김광자	양봉욱	정희자/한상순/김제연

갈보리 금주 기도 제목

- 환자를 위해**
- 1. 혈액암으로 투병중인 기섭 형제가 체력 보강으로 2차 항암치료를 시작할 수 있도록
 - 2. 여러 질병으로 힘들어 하는 성도들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넘치며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 교회를 위해**
- 1. 성전건물 매입에 모든 성도들이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여 다음세대를 준비하는 성전이 세워지도록
 - 2. 성도들의 생업과 직장에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어려움이 형통함으로 이어져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 세상을 위해**
- 1. 안보의식이 안일한 한국에 미스파와 니스웨 같은 회개와 영적 각성이 한국교회에 일어나도록
 - 2. 최근 10년간 기독교인 100만명이 순교했습니다. 열방의 모든 교회들이 순교자들의 신앙을 가지고 살도록

갈보리 교회를 섬기는 이들	담임목사 : 이태한	시무장로 : 김영길, 이광희	은퇴장로 : 김교섭, 박일영
	부목사 : 심창진	정관영, 현석호	정덕수, 최재학
	교육전도사 : 진혜령	지휘 : 신경화	유송재, 박제용
		만주 : 송민영, 유지선	



갈보리 교회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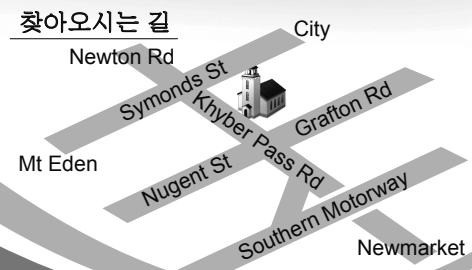
하나님 만이 삶과 교회의 주인

갈보리 교회 비전

1. 예배의 영광을 회복하는 교회
2.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워지는 교회
3.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2011 교회표어: (사도행전 6:4)

“기도로 세워지고, 말씀으로 성숙하는 교회”



예배시간안내

주일1부예배	주일	PM1:00	본당	유아부	주일	PM1:00	유아실
주일2부예배	주일	PM3:00	본당	아동부	주일	PM1:00	Chapel
수요일예배	수요일	PM7:30	본당	중고등부	주일	PM1:00	별관
새벽기도	금요일	AM5:50	Chapel				

갈보리교회

CALVARY PRESBYTERIAN CHURCH

2011년 6월 26일

주보 13권 26호

www.calvary.org.nz

St David's Presbyterian Church. 70 Khyber Pass Rd. Grafton Ph: 09 - 369-5077

주일1부예배

오후 1시	인도: 이태한목사	
전주	반주자	
예배로 부름	마태복음 11:28-30	인도자
개회송	찬양대	
참회의 기도	다함께	
*찬송	10장 (34장)	다함께
*성서교독	91. 성찬(1)	다함께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함께
찬송	270장 (214장)	다함께
대표기도	고성일집사	
성경봉독	누가복음 24:13-20, 28-35	인도자
찬양대찬양	나무십자가찬양대	
설교	엠펙오에서 예루살렘으로	이태한목사
성찬예식	집례자	
찬송	456장 (509장)	다함께
헌금기도	인도자	
*교회소식	인도자	
*응답송	주기도문 송	다함께
축도	이태한목사	

*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넣어주세요

기도순서안내 | 다음주 기도: 박덕철 집사 7월 10일: 박병민 집사

건축헌금 | 지난 주: \$1,255.32 총계: \$597,267.19

주일2부예배

오후3시	청년찬양단		다함께
찬양	최장한집사		
기도	인도자		
성경봉독	시편 109:1-5	인도자	
설교	나는 사랑하나	심창진목사	
찬송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다함께	
헌금기도	인도자		
교회소식	인도자		
축도	심창진목사		

다음주 기도: 진혜령전도사

성서교독 91: 성찬(1)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수요예배

오후7시30분	사회: 최장한 집사	
찬양	수요찬양단	다함께
기도	유동연집사	
성경봉독	계시록 22:6-12	최장한집사
특송	내가 주인 삼은	통가공동체
설교	속히 오리라	이태한목사
합심기도	설교자	
광고	담임목사	
찬송	176장 (163장)	다함께
주기도	다함께	

수요예찬 기도: 한누리집사
다음 수요기도: 정진택집사

갈보리 칼럼

기회가 올때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로 마주볼때까지 우리의 삶은 흥미진진함과 모험으로 형성되어진다. 어떻게? 우리를 주님께 더 가까이 그리고 주님과 함께 다른이들의 삶을 감동 시키시는 주님의 지속적인 초청을 통해서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문제 결정을 함에 있어서 더 지혜롭게 이끄시고 주님이 주시는 기회를 잡기 위한 준비를 사키신다. 하나님은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고, 행할것을 주의하여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고 말씀하신다 (에베소서 5:15~17). 주님은 모든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기회를 제공하신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눔' 기회를 주신다.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굶주린 군중들을 만났을때, 어린 소년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다 (요 6:1-14). 그 소년은 헌신적으로 자신의 점심을 내어 드렸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헌물을 증대시키시기를 목격하는 축복을 받았다. 이것이 우리가 아는 '오병이어' 사건이다. 그 어린 아이처럼,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쓰실지 좀처럼 예상못할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내어 드리는 기쁨' 을 경험하는 기회를 주시해야 한다.

둘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님을 섬기는' 기회를 주신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어부로서의 성공적인 삶을 떠나라고, 그리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 위험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라고 요청하셨다 (마 4:18-20). 베드로가 믿음 위에 굳게 섰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이 세상의 처음 교회를 세우는데 사용하셨다. 이와같이, 우리는 우리가 부적합하다고 느끼는 것과 상관없이, 주님께서 항상 우리를 주님이 여시는 문을 통해 걸어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

셋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과의 관계를 성장시킬' 기회를 주신다. 마르다의 누이 마리아는 지나친 음식준비 대신, 지혜롭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는것을 선택하였다 (눅 10:38-42). 우리는 불필요한 분주함으로 인해서 주님을 더 알 수 있는 기회에서 멀어지도록 버려두지 않아야 한다.

넷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타인을 도울' 기회를 주신다. 중풍환자의 친구들은 그 불구자가

- Charles F. Stanley 목사 (최장한 집사 역)

예수님을 만날수 있게끔 하는데 안간힘을 썼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곳의 지붕에 구멍을 내서 그를 내려 보냈다 (눅 5:17-26). 그 결과, 그들은 그 중풍병자인 친구가 고침을 받는 것 뿐만 아니라 죄 사함까지도 받는것을 목격하는 기쁨을 갖게 되었다. 이처럼 우리도 남을 돕는것이 도전을 통한 압박을 수반한다 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하려는 마음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

다섯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이해할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누가복음 19:1~10에선 메시아를 보기위해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다. 그 당시 나무에 올라가는것은 천한 행동 중 하나였다. 세리장의 삶은 예수님이 그에게 손을 내미셨을 때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또는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를 주님이 보내시는 기회에 반응하는 것으로 부터 더디게 하는 것을 허용해선 안된다.

여섯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받을' 기회를 주신다. 마가복음 10:17~22에서,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수 있는지를 물었다. 그 사람의 믿음에 큰 방해가 되는것이 그의 재산이라는 것을 아신 예수님은 그가 그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불행하게도, 그 사람은 근심하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구원'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선택은 예수님을 통해 영생을 얻는것이다. 온 우주를 지으신 분인, 예수님과과의 살아 있는, 개인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선택은 있을수 없을 것이다.

오늘날 당신 앞에 놓여진 주님이 주신 기회는 무엇인가? 아마도, 사랑의 하나님은 위기를 동반한 좋은 기회를 견뎌 내라고 당신에게 요청하고 계실지도 모르겠다. 당신에게 무슨 일을 시키실지에 상관없이, 내 기도는 다음과 같다. "당신이 조심스럽게 걸어가고, 현명한 결정을 하고 당신 앞에 놓인 주님이 주시는 기회를 붙잡을때 흥미진진한 그리스도인의 삶과 약속을 인지하게 하옵소서. 아멘. "